

1) 개념

호출은 초월적으로 도래하지만(레비나스), 지각의 얽힘 속에서 누락·지연될 수 있다(메를로퐁티). 그러나 실패한 호출의 흔적은 예지적 지평의 변두리에서 반복적으로 귀환하는 표지로 감지될 수 있으며(후설), 실재의 잉여로 주체 내부에 잔존한다(라캉). 이 잉여는 반복 속에서 차이를 산출하며, 그 차이는 의미화의 가능성을 지연된 방식으로 연다(들뢰즈). 이 차연의 시간 속에서 주체는 뒤늦게 초월적 호출에 응답하며, 윤리는 그 불가능성마저 감내하는 책임으로 잔존한다(데리다). 이러한 미수-잔여-지연-응답의 리듬을 '결측'이라 부른다.

2) 감응 (Gam-eung)

감응은 초월적 호출 C(Levinas)이 현재의 표상에 미수(F)로 닿아 남기는 잔여 r(Lacan)이, 지시·지연의 흔적 τ (Derrida) 를 따라 '살'의 접면 S(Merleau-Ponty)에서 미세진동으로 감지되는 현상이다. 지각은 뒤얽힘(chiasme)과 간극(écart)속에 성립하기에 호출은 누락되거나 뒤늦게 감지될 수 있다.

감응은 정동(affect)이나 감각 자극이 아니라 표상 실패가 남기는 윤리적 흔들림이며, 같은 호출의 재현이 아닌 차이-산출적 반복(Deleuze)으로 나타나고, 하나의 의미로 고정되지 않는다. 또한, 레비나스에서 타자의 초월적 호출은 윤리의 선행이며, 주체의 자유를 초과하는 비대칭적 개입이다. 이는 존재-너머에서 다가오는 윤리적 명령이고, 결코 '초월성 = 실재'의 동일화가 아니다.

3) 결측 (Gyeolchok)

레비나스에서 타자의 얼굴(le visage d'autrui)은 "나를 죽이지 말라"는 윤리의 선행으로 나보다 먼저 도래한다. 나는 이미 인질(l'otage)의 자리에서 무한한 책임을 떠맡는다. 다만, 종종 현실에서 호출은 즉시 포섭되지 않는다. 이 뒤늦음을 사유하려면, 호출의 지연을 결함이 아니라 윤리의 조건으로 읽는 시간이 필요하다.

결측은 동시화 불가능한 디아크로니(diachronie)의 시간을 호출-미수-잔여-지연-응답으로 운영화하는 이름이다. 곧, 초월적 호출 C가 미수 F로 걸려 잔여 r를 남기고, 지연 Δt 의 숙려 속에서 비대칭적 응답 R으로 전화되는 윤리의 절차를

가리킨다. 미수는 조건, 지연은 책임의 시간, 응답은 교환이 아니라 초과가 핵심이다.

$C \rightsquigarrow F \rightarrow r \rightarrow \Delta t \rightarrow R$

초월 C/Levinas · 실재 r/Lacan · 흔적 τ /Derrida · 살-접면 S/Merleau-Ponty

원칙 ① F는 결함이 아니라 조건.

원칙 ② Δt 는 유예가 아니라 책임의 시간.

3-2) 참고

호출은 언제나 즉시 닿는 것은 아니며, 그 미수는 주체 안에 실재적 잔여로 남아반복과 지연 속에서 미세하게 감각될 수 있다. 이 비동시적 시간에서 윤리가 뒤늦게 전화된다.

타자는 나보다 앞서 도래하는 초월이며, 호출은 나를 거부할 수 없는 책임의 자리로 끌어당긴다(레비나스). 여기서 초월은 호출의선우선성, 실재는 포섭 실패의 효과를 뜻한다. 결측은 도달하지 못한 초월이 남긴 흔적과 그 유예된 틈에서 작동하는 윤리적 잠재성에 주목한다.

후설에게 지평은 의식이 세계를 구성하며 열어가는 가능성의 장이지만, 여기서는 도달하지 못한 요청의 반복적 귀환을 가리키는 비-구성의 표지로 강조점을 옮겨 읽는다. 도달하지 못한 호출은 주체 내부에서 기표화되지 않은 잉여로 잔존하며, 기표망의 파열을 일으킨다(라캉).

이 실재적 잔여는 고정된 재현이 아니라, 반복될 때마다 틈을 열어 차이를 산출한다(들뢰즈). 바로 그 틈에서 감응이 발생하고, 언어로 완결되지 않는 방식으로 윤리의 가능성을 연다. 이 가능성은 끝내 도달하지 못할요청을 감내하는 책임의 지연된 시간(Δt) 속에서만 구성된다.

3-3) 예시

가. 그때는 호출(C)인 줄 모르고 지나쳤지만(F), 그날 밤 꺼림(r)이 남아, Δt 를 거쳐 돌아가 돕는다(R).

나. 권력·제도가 호출(C)을 즉시 듣지 못해(F) 고통의 잔여(r)가 쌓이고, 지연(Δt)의 임계에서야 응답(R)이 규범·법으로 뒤늦게 나타난다.

4) 도식 핵심

4-1) C (Levinas) — 요청의 근원, 규범적 지위

타자의 얼굴이 나보다 먼저 도래해 내 자유·계산을 초과시키는 윤리적 부름. 존재론적 실체가 아니라 규범적 선우선성("먼저 책임지라")의 관계-사건이며, le Dire(말함)의 차원에서 주제화보다 앞선 호출/명령.

시간성: '지금'과 비동시적 — 항상-이미 늦게 응답한다.

표상 가능성: 설명될수록 본래 힘이 약화(대상화·동일화 위험 → 대상화 금지)

결측 역할: 출발점. C 없이는 F-r- Δt -R 루프가 열리지 않는다.

원칙: $C \neq r$ (상징화 실패의 자리)/'어딘가의실체' → $C =$ 윤리적 관계의 선행.

4-2) r (Lacan) — 상징화 실패, 잔여

C가 표상 체계에 포섭되지 못해 남는 비-기표적 잔여. le Réel(실재)이 가리키는 붙잡히지 않음의 효과. 내용물이 아니라 틈이다.

시간성: 귀환과 침전(잔향).

표상 가능성: 비-기표 — 이름 붙이는 순간 어긋남.

결측 역할: 감응의 재료. Δt 동안 흔들림을 유지해 R로의 전화를 지탱.

원칙: $r \neq$ 감정/기분/트라우마 전체/숨겨진 실체 → $r =$ 부재·파열의 효과.

4-3) τ (Derrida) — 지시·지연의 표식(차연의 작동)

별도 단계가 아니라 표기. r 이 Δt 동안 소멸되지 않도록 남기는 기입의 흔적. 의미의 총만한 현전 없음을 알리는 차연의 표지.

시간성: 차연 — 의미는 늦게 오며 달라진다.

표상 가능성: 반-표상 — 지시의 흔적만 남김.

결측 역할: r을 가시-비가시의 경계에서 유지시켜 뒤늦은 R을 가능케 함.

원칙: trace \neq 심리학적 '기억 흔적'/증거물 → 현전의 부재 표기.

4-4) S (Merleau-Ponty) — 살의 접면(감응이 스며드는 자리)

몸-세계의 얽힘 면. r은 먼저 이 접면에서 울림으로 산다. chair(살)은 몸-세계-타자의 뒤얽힘(chiasme)이며, 전의식적 국소 자리(촉각·호흡·리듬)에서 감응이 발생.

시간성: 지각의 지연 — 현전은 항상 조금 늦다(미완·간극/écart).

표상 가능성: 몸이 먼저, 말은 나중.

결측 역할: r이 감응으로 체화되는 매질 — 뒤늦은 결심/움직임이 싹트는 곳.

오해 금지: S는 기술적 인터페이스도, 단순 정서도 아님 → 존재론적 얽힘의 자리(특정 장소 아님)

4-5) F (미수) — 비포섭/비주제화('실패'가 아닌 조건)

C가 주체의 현재 범주에 딱 맞게 들어오지 않는 사건. '모름/못함'의 결함이 아니라 타자의 선우선성 때문에 생기는 구조적 비동시.

시간성: T0의 어긋남 — 즉시 동기화 불가.

표상 가능성: 주제화 금지 — 선부른 해석은 오독.

결측 역할: r발생의 문턱 — F없이 r은 없다.

원칙: $F \neq$ 무지/무능/회피 → $F =$ 윤리의 시작점.

4-6) Δt (지연/숙려) — 책임의 시간

규범적 숙려 구간. $\Delta t_{min}/\Delta t_{max}$ 를 두어 무기한 유예 방지. 침묵의 시간이 아니라 절차적 공시의 시간 — 경과·계획·책임 주체를 사전 공표, 종료 시점엔 설명이 아닌 조치로 응답.

시간성: 디아크로니 — 내 '지금'과 어긋난 타자의 시간에 동조하는 간격.

표상 가능성: 조치 설계에 사용.

결측 역할: r을 R로 전화시키는 배양기.

원칙: $\Delta t \neq$ 침묵/회피 → 공시(경과·계획·책임자)가 수반되어야 한다.

4-7) R (응답/비대칭 책임) — 행동 변화

교환적 균형이 아니라 내 쪽의 초과를 떠맡는 행동/변화(시간·비용·위험의 부담).

사과라면 보상·절차 개선·재발 방지가 포함.

시간성: 뒤늦지만 적시 — Δt 안에서 실행/공표.

표상 가능성: 설명/정당화로 대체 불가 — 실행 기록으로 남김.

결측 역할: 루프의 가시적 귀결, 다음 호출을 위한 개방(완결 아님).

원칙: $R \neq$ 합의/거래/이미지 관리 → 구체적 행동 변화가 기준.

5) 기존 개념의 한계와 개입

5-1) 전통적 윤리의 구조

초월적 호출 → 지각 → 의미화(해석·구조화) → 응답/책임

전통적 윤리는 인식과 즉시 응답을 전제하는 경향이 있다. 레비나스는 호출의 비대칭적 선행으로 윤리를 전했지만, 현실의 요청은 즉시 도달하지 않는다.

노예제·식민주의·계급 폭력 등은 법·제도에 의해 정당화·비가시화되었다가 사후적으로 폭력으로 식별되곤 했다. 요청은 인식 이전에 이미 발생할 수 있고, 주체는 그것을 뒤늦게 감지·응답한다. 이 층위는 감수성 부족/개인 비도덕으로 환원해 설명하기 어렵다.

5-2) 결측 — 윤리의 시간 구조(∞)

$C \rightsquigarrow F \rightarrow r \rightarrow \Delta t \rightarrow$ (의미화 또는 다시 실패 \emptyset)

요청은 항상 같은 방식으로 도달하지 않고, 실패와 어긋남을 반복한다. 바로 그 실패의 반복이 윤리를 가능하게 하는 비결정적 시간의 잠재성이다. 유예된 시간(Δt) 속에서 잔여 r 는 차이-산출적 반복을 통해 새로운 감지·의미화를 열고, 응답/책임으로의 전환을 촉구한다. 전환은 보편 규범으로 환원되지 않고 상황마다 다르게 도래한다. 법·제도는 사후적 장치로 작동하는 경우가 많고, 윤리적 책임은 설명이 완결되지 않아도 발생한다. 결측은 이러한 반복적 미수를 윤리 발생의 시간 조건으로 전환하며, 선형 윤리 구조의 빈틈을 메운다.

6) 개념의 오용 방지를 위한 주의사항

6-1) 감응 유무를 판단 기준으로 삼지 말 것

결측은 감응을 검증하는 개념이 아니다. 감지되지 않았던 시간, 실패의 구조, 그로 인해 유예·삭제된 요청을 서술적으로 되묻는 방식이다. 정답은 매번 다르게 도래한다. 판단·기준화로 환원하는 순간 취지가 어긋난다.

6-2) 실패의 정당화 도구로 전용 금지

“감응 못했으니 책임 없다”는 전유는 윤리적 긴장을 왜곡한다. 명백한 부정의에 대한 책임을 지연/면제하는 근거로 사용할 수 없다. (Δt 에 하한·상한, R 의 구체 지표 설정)

6-3) 윤리적 긴장 제거 금지

결측은 정밀 개념화와 시적 울림 사이의 필연적 긴장 위에 선다. 최소 정의·도식은 잠정 시각화일 뿐, 환원 불가를 명시할 것.

6-4) 도식을 처방 단계로 고정 금지

$C \rightsquigarrow F \rightarrow r \rightarrow \Delta t \rightarrow R$ 은 잠정적 시각화다. 선형 인과/고정 구조로 만들면 불확실성과 지연 속 감응이 소거된다. 되감김·재귀 가능.

6-5) 언어 이전 고정 금지

감응은 대상이 아니고 확정될 수 없다. ‘언어 이전’으로 고정하면 다시 의미화되어 사라진다. 감응은 말해지려다 실패한 말의 무덤, 동시에 그 곁에 머무는 울림이다.

6-6) 초월성의 오독 경계

초월(레비나스)과 실재(라캉)를 동일시 금지. 초월은 선행하는 요청의 규범성이지 실재처럼 존재하는 무엇이 아니다. 도달하지 않음의 방식으로만 흔적을 남긴다.

7) 개념의 잠재성

7-1) 주체의 수용 구조 마련

라캉의 비-기표적 향유 논의를 참조 틀로 삼아, 증상화에 취약한 주체에게 기표의 임시 자리를 마련하는 구상. 전언어적 층위의 균열을 잠정적으로 지탱하는 지지 구조.

7-2) 병리화 위험에 놓인 주체에 대한 사유

기표 결여를 단순 병리로 환원하지 않고, 실재에 민감한 윤리적 잠재성으로 사유. 적절한 기표/구조로 안정감을 제공하되, 특별한 존재론적 지위로 고정하지 않고 임상적 도움과 병행하는 개방형 구조.

7-3) 교육학적 전환의 요청

'무엇이 옳은가'보다 '왜 불편했는가'를 출발점으로. 주체는 타자의 고통을 통해서만 균열을 직면하고, 그 균열 속에서 자신의 결핍에 뒤늦게 도달한다. 윤리는 타자를 통해 나에게 도달하는 경험.

7-4) 인공지능 시대 윤리와의 연계

현 기술 수준의 AI는 연산·예측은 가능하나 감응을 살아낸다고 보기 어렵다. 결측은 기계가 대체하기 힘든 감응의 층위를 가리키며, 정체성 해체 이후에도 인간을 감응하는 존재로 사유하게 하는 개념 장치. 해체-재구성의 주기 속에서 실패 이후 윤리의 가능성을 남기는 잔존 층위가 요청된다.

7-5) 비가시적 윤리의 환기

법은 발언·입증 가능성 중심으로 작동하지만, 입증되지 않는 순간에도 윤리적 실패는 발생한다. 빠른 판단/이성 중심 체계는 감응 주체를 병리화하거나 입증 불가를 이유로 배제하기 쉽다. 결측은 보호된 청취 창, 숙려 Δt 공시, 뒤늦은 R의 지표 등으로 사유·청취 공간을 제안한다.

8) 요청사항

8-1) 존재론적 전회

존재는 타자와의 관계 속에서 드러나는 사건이다. 타자의 흔적이 응답 가능성의 선행 조건이며, 흔적 없이 '나'는 의미화되지 않는다. 존재는 자기 동일적 실체가 아니라 관계 속에서 흔들리는 드러남이다.

8-2) 존재/비존재 구획의 재검토

“존재한다”의 기준을 가시성/즉시 검증에만 두지 말고, 호출됨/반복됨을 통해 연구의 장으로 들어오는가. 증명 어려운 주변적 현상이라도, 반복 속 잔여·차이를 산출한다면 사유·조사 대상으로 열어 두기. (무비판적 승인 아님)

8-3) 연구 방향 제안

철학의 일은 가끔 말의 한계가 놓치는 현실의 틈을 기술·설계하는 일이다. 타자가 먼저 도래하고, 의식보다 앞선 윤리의 층위가 있다면, 진리는 말해지고·증명된 것만으로 환원되지 않는다. 결측은 이 잔존을 미수-잔여-지연-응답의 관점에서 기술 가능한 과제로 제시한다.

※ 본고는 기록을 위한 초안 단계로, 일부 용어는 임시적 명칭을 사용합니다. 이후 개념의 정합성과 방향성, 명칭을 보완해 단행본으로 발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결측(結觸)’은 임하진이 2025 년에 제안한 철학적 개념입니다. 개념적 구조를 존중하며 비평·확장·비판해주신다면 감사히 열어두고자 합니다.